



주간통일정세 2008-04(2008.01.14 ~ 01.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0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 **식량문제 우선해결 강조(1/18, 조선중앙방송)**
 - “올해 무엇보다 먹는 문제, 식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강화 부각 (1/18, 조선신보)**
 - 평양시 건설지도국 김형길(61) 부국장은 2012년까지 평양의 10만 가구 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고, 상하수도과 체신망 등 정비, 옥류관, 중앙동물원, 류경호텔, 대동강 강안(2단계, 대극장-충성의 다리구간), 양각도 유원지 등 70여 곳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힘.
- **경제과제 달성 관련 군중대회 개최(1/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신년 공동사설 발표 이후 공동사설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주민 10만여 명 군중대회 개최에 이어 도별 군중대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군중대회는 도, 시, 군을 거쳐 산업시설과 기관 등으로 확산
- **‘자강도’ 부각 보고 대회 개최(1/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5일 자강도 강계시에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최기룡 자강도 인민위원장 등 간부들과 도내 근로단체, 공장·기업소 일꾼,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보고회 개최
 - ※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1월 16~21일 김정일이 자강도 강계시를 시찰, 중소형발전소 등을 자체 건설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강계정신’으로 규정, 주민동원 구호로 제시

나. 사회·문화 관련

- **토끼고기를 ‘제2의 단고기’로 부각(1/20, 조선신보)**
 -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닥치면서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풀과 고기를 맞바꾸자”며 풀을 먹여 고기를 얻을 수 있는 토끼 기르기를 적극 권장해왔으며,
 - 공장, 기업소, 학교, 군부대는 물론 가정들에서도 토끼를 기르고 있으며,
 - 현재 평양 식당가마다 토끼고기 요리를 간판 메뉴로 내놓고 ‘제2의 단고기(개고기)’로 부각 선전
- **2004년 인구 2천361만2천명(2007년판, 조선중앙연감)**
 - 북한 총인구가 2004년 현재 2천 361만 2천명으로 집계
 - 이전 집계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1996년 2천 211만 4천명, 1997년



2천 235만 5천명, 1998년 2천 255만 4천명, 1999년 2천 275만 4천명, 2000년 2천 296만 3천명, 2001년 2천 314만 9천명, 2002년 2천 331만 3천명임.

● 4천여점 식물표본 채집(1/4, 민주조선)

- 중앙식물원연구소는 2007년 북한 각지의 식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 4천여점의 식물 표본을 채집

● 제2차 전국소묘축전 개최(1/17,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을 맞아 ‘2·16경축 제2차 전국 소묘축전’이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 이번 축전은 화가, 미술애호가, 대학생,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부문으로 나누어 치러질 것으로 알려짐.

● 최초 어린이전문병원 8월 개업(1/17, 조선신보)

- 조선적십자병원, 김만유병원 등과 함께 북한의 3대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평양의학대학병원이 2008년 8월 어린이 전문병원인 독립된 소아병동을 개업할 예정

● 개성서 고려시대 돌다리 발굴(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개성시 덕암동에서 고려시대 돌다리인 ‘취적교’의 주춧돌로 추정되는 유적 발굴

2. 대외정세

● 적극적 대외활동 강조(1/18, 노동신문)

- 2007년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를 “선군조선의 대외적 권위가 전례 없이 높아”진 것으로 자랑하고 앞으로도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가. 북·미 관계

● 대미비난 강화(1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 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 “대조선(북한) 압살기도”에 매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



- **평양 소주 미국 상륙 예정(1/17, 뉴욕한국일보)**
 - 북한산 평양소주가 빠르면 2월, 뉴욕 등 美동부에서 시판될 것으로 알려짐.

나. 북·중 관계

- **김용삼 철도상, 중국 방문(1/19,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하는 김용삼 철도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철도성대표단이 19일 평양을 출발
- **박의춘 외무상, 첫 공식 방중 예정(1/14, 북한주재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2007년 5월 임명된 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다. 북·일 관계

- **日 ‘테러대책법’ 재의결에 대한 비난(1/15, 조선중앙방송)**
 - 일본이 ‘신(新)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을 재의결해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다국적군 함정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범죄적 행위”라고 비난

라. 북·러 관계

- **북한 노동당, 러 대사관과 신년 친선모임(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8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과 신년 친선모임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다짐했다고 보도
 - 이날 모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지재룡·박경선 당 국제부 부부장 등 북측 관계자들과 발레리 수히닌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

마. 기타 외교관계

- **김정일 위원장, 베트남 방문 합의(1/18, 아사이신문)**
 - 베트남의 팜 자 키엠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식으로 초청,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로 북한측과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고 보도됨
 - 키엠 베트남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
- **북한, 이란과 잠수함으로 외채 상환 협의(1/18, 산케이 신문)**
 - 북한은 이란에 진 수억 달러의 외채를 소형 잠수함으로 대신 상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됨.
 - 이란은 이미 배치한 잠수함의 성능 개선도 요구하는 것으로 소개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10·4선언 철저히 이행하면 획기적 국면” 강조(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철저히 이행되면 조국통일의 앞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면서
 -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
- 한·미·일 3각협력체제 구축 관련 비난강화(1/5, 1/16, 노동신문)
 - 한·미·일 3각협력체제의 구축 또는 복원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3각 협력체제를 “대조선 압력공조체제”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힘.
 - 한·미·일의 대북 3각 “압력공조”에 “강력 대응”을 경고하는 기사를 잇따라 실고 있음.

나. 남북교류

- 원광대, 北에 담요 1천400장 전달(1/16, 연합)
 - 원광대(총장 나용호)가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해 담요 1천400여 장을 북측에 전달
- 인디에프, 개성 공장 기공식(1/14, 연합)
 - 인디에프(옛 나산)는 14일 개성공단에서 1차 개성공단 의류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힘.
- 개성공단 인터넷 서비스 연내 개통(1/14, 연합)
 - 2008년 안으로 개성공단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개통될 것으로 보이며,
 - 금강산과 해주, 남포 등 신규 경협지역에 대한 통신망 구축이 확대
 - 북한의 IT(정보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개성에 ‘IT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으로 보도됨.
- 정부, KOTRA 평양무역관 설치 추진(1/14, 연합)
 -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평양에 KOTRA 무역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송 외교, “2월 중순 전 6자회담 개최 추진”(1/14)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중국정부 특사로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까운 시일내에 차기 6자 수석대표회담을 열어야 한다”며 “가능하면 2월 중순 이전에 열렸으면 한다는 입장을 왕이 부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헤리티지재단」과 WSJ, “북한은 3% 경제자유국”

- 해마다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를 수치로 환산해 발표하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발표한 「2008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를 3%라고 평가했음.
- 이는 30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최하위인 것은 물론 전 세계 157개 대상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임.
- 북한은 총 10개 평가분야 가운데 투자자유, 재산권, 부패로부터의 자유 등 단 3분야에서만 각각 10%를 얻었을 뿐 비즈니스자유, 무역자유, 회계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재정자유, 금융자유, 노동자유 등 나머지 7개 분야에선 모두 0%를 받았음.

● 미 북한인권특사, “북핵 인권·경제지원과 연계해야”(1/17)

-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는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핵과 같은 안보문제를 인권, 경제지원 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한국과 중국이 현상유지를 선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는 부시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 만료 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1년 후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현재의 핵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미, 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재확인(1/18)

- 테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6자



사람들의 사고 변화 ▲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의 가능성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짐.

2. 주변국 관련

가. 일본 관계

● 일, 독도 2만5천분의 1 정밀지도 제작

- 일본 국토지리원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일본측 명칭 다케시마)에 대한 2만5천분의 1 짜리 정밀 지도를 제작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1/17)했음.
- 2만5천분의 1 지도는 도로와 관광지도 등 모든 지도의 토대가 되는 기본도로, 이로써 러시아와 영토분쟁중인 북방 4개섬을 제외한 ‘일본 전국’의 기본도가 정비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일, 외무성 간부 인사 단행(1/17)

-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외무성 사무차관의 후임에 야부나가 미토지(藪中三十二.59) 외무심의관을 임명하는 등 외무성 간부 인사를 단행했음.
- 차관보급인 외무심의관에는 그동안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로 활약 해온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56)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승진 기용됐고, 아시아·대양주 국장에는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55) 주미대사관 공사가 임명됐음.
- 야부나가 차관과 사사에 심의관, 사이키 국장은 6자회담과 일본인 남북문제에 관한 북·일 교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북한통’으로, 대북 현안 해결과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됨.

나. 한·미 관계

● 「아사히」, “미,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에 항공기 300대 배치”

- 주일 미군 해병대가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에 최대 300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자체 입수한 미국의 공문서를 인용, 보도(1/16)했음.

● CRS 보고서, “한국, 이 당선으로 아·태 다자안보 참여 가능성”

- 미 의회조사국(CRS)은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안보체제 트렌드: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간 양자·다자 유대관계’라는 보고서(1/7)에서 작년 12·19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3자 혹은 4자 안보체제에 한



국도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음.

-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외교·군사력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은 기존 양자 중심 지역안보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했다며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3자 혹은 4자 지역안보체제 구축을 시도해 왔음을 지적했음.

다. 한·중 관계

● 왕이 특사, 방한(1/13~16)

- 중국 정부 특사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이명박 당선인을 예방(1/14)한 자리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해 달라는 후진타오 주석의 의사를 전달했음.
- 이 당선인은 또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과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도 후 주석의 초청을 받았음.
- 이 당선인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하자”고 말했음.

● 박근혜 특사, 방중(1/16~19)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장으로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1/17)했음.
- 후진타오 주석은 “박 특사의 방중이 한·중 양국이 지향하는 전면적 동반자관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음.
- 박 특사는 양제츠 외교부장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구슈롄(顧秀蓮) 전인대 부위원장 등과도 면담했음.
- 한편 중국 언론들은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1/17)에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별도 뉴스로 보도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음.

라. 한·일 관계

● 이상득 특사, 방일(1/15~18)

-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를 만나 이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1/16)한 데 이어 일본 자민당내 최대 파벌의 수장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과 면담했음.
- 이 부의장은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공명당 대표를 만나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일본 정계의 거물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를 만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음(1/17).



● 후쿠다, “차기 대통령과 미래지향 안정관계 구축”(1/18)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통상(정기)국회 중의원·참의원 합동 본회의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2월에 취임하는 이명박 차기 대통령과 미래지향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후쿠다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6자회담 등을 통해 관계 각국과 연대해 핵폐기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모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 미·중 관계

● 미 태평양사령관, 중국에 합동군사훈련 참가 제의(1/15)

- 중국을 방문중인 티모시 키팅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군사 고위급들과 회담하는 가운데 태국에서 5월에 시작하는 합동 군사훈련인 ‘코브라 골드’(Cobra Gold)에 참가해 줄 것을 제의했음.
- ‘코브라 골드’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예방과 민족, 종교 충돌에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1982년 미국과 태국간 군사훈련으로 처음 시작했으나, 2000년에 싱가포르가 참여하면서 지역성 다자 군사훈련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2007년에는 미국, 태국, 싱가포르 외에도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참여했음.
- 중국은 지난해 훈련에 옵서버로 참가했으나 미국이 ‘코브라 골드’의 규모를 키워 동남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중·미, 전략대화 개최(1/17~18)

-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에서 개최된 제5차 미·중 전략 대화에 처음으로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참석, 향후 국방부문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대표단은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 대표단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이 이끌고 있음.
- 중국에서는 국방부 외사판공실 부주임인 덩진궁(丁進功) 소장이, 미국측에서는 제임스 신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처음으로 양국의 군사전문가로 참석했음.
- 중국은 이번 전략대화 기간에 군사 부문을 포함한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미국은 군사적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 양국 관계발전에 무척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